

고교-대학 연계학점 인정 체제 구축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대·국립군산대·전주대 등 도내 8개 대학과 협약 체결... 고교학점제 도입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 왕의지빌 사임당홀에서 국립군산대, 군산간호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등 도내 8개 대학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는 학교 밖 교육의 하나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점이 동시에 인정되는 제도다.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심화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면 고등학생이 3년간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해 최대 8학점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과목을 이수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목명과 학점, 객관적 학습 내용 등이 기록된다.

다만, 대학에서의 학점 인정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진다.

한편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제도는 대학의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전주 왕의지빌 사임당홀에서 국립군산대, 군산간호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등 도내 8개 대학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공

동교육과정이나 전북은라인학교,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력 제고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평준화 고교 배정 결과 발표

22일까지 합격자 등록기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39개교의 배정 결과를 전북고입포털과 중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평준화지역 합격자 총 8,933명을 발표한 후, 14일 공개 배정추첨회를 열어 학생·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등학교 배정 추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 8,933명 중 다자녀 선배정 대상,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체육특기자 등 선배정 등을 포함한 7,011명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한편 입학등록은 20~22일 3일간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결과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이 2025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주 관내 중학교 진학 대상자는 총 6,844명으로, 지난해 대비 114명 증가했다.

배정 결과 1지망 배정률은 91%로 전년도에 비해 1.54%p 감소했으며, 3지망 내 배정률은 99.5%로 전년보다 0.04%p 감소했다.

특수교육대상자와 체육특기자, 중대 질병대상자, 다자녀가정학생, 장애부 모보양학생 등 870명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추첨 배정했다.

배정 결과는 전주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하다. 학생들은 해당 초등학교를 통해 개인별 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오는 21일부터 배정받은 중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여해 입학 안내를 받아야 한다.

김정기 교육장은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학생 수용 여건을 고려한 학교당 정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거버넌스 운영위 “현장서 답 찾겠다”

운영위원장에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선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3기 교육거버넌스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 선출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3기 교육거버넌스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 선출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이 선출됐다.

교육거버넌스 운영위원회는 △ESG △인성회복 △지역사회 협력 등 3개 분과를 구성, 실효성 있는 전북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위병기 운영위원장은 “첫 운영위원회를 교원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개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교육 현장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교육거버넌스는 교육현장 방문을 더욱 확대해 실효성 있는 의제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학생 위한 행사 ‘성황’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인재양성 체제 구축 위한 취업 페스티벌·반도체 포럼 개최

전북대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단(단장 김진수)은 지난 16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전남대학교 반도체사업단과 함께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취업 페스티벌 및 반도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기업과 학생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주관대학인 전북대와 참여대학인 전남대, 그리고 유관기관 및 기업들이 반도체 인재양성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 김진수 단장과 전남대 홍성훈 단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성지현 주무관, 전주시 박성현 주무관, 광주광역시 영경환 팀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현 단장, 광주테크노파크 김운섭 본부장 등 반도체 관련 연구자, 기업 관계자, 지자체 및 지원기관 관계자, 전북대와 전남대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참여 학생들의 자기계발 강연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을 통해 체득한 다양한 경험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사업의 우수성을 공유했다. 이어진 1부 행사에서는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소개와 함께 가천대 김용석 교수가 산업 전망과 미래 비전에 대해 강연하며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2부에서는 호남광역권 반도체 협의체 구성 회의가 열렸다. 전북대와 전남대 사업단과 지자체,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지역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특강에서는 KIST 김성수 박사와 ETRI 한원석 박사가 ‘반도체 연구자의 길’을 주제로 진출할 조언과 경험을 나눠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3부에서는 12개 반도체 기업이 참여한 취업페스티벌이 진행됐다. 기업 현황과 채용 정보가 공유됐으며,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취업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진로 특강과 전문가 강연을 통해 역량 개발과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수 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는 반도체 기업과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지원, 그리고 대학 사업단 및 관련 유관기관 간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며 “각 지자체와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참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우리 학생들이 호남지역을 넘어 국가의 우수한 인재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와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교육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산지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속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인재 양성 체제 구축 및 운영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더 큰 세상을 향한 꿈 키울 기회”

서거석 교육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챌린지 동참 하계올림픽 유치 위한 전북교육 주체 적극 참여 독려

서거석 교육감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김관영 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SNS



교육감은 SNS를 통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고 더 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올

림픽 유치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염원이 담긴 원대한 도전에 따뜻한 관심과 합찬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서교를 통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고 더 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올



전주대학교는 지난 16일 신라스테이 전주에서 제1기 하우와우미래캠프 협업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워크숍에 앞서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에 대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전주대, 제1기 하우와우미래캠프 협업기관 워크숍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6일 신라스테이 전주에서 제1기 하우와우미래캠프 협업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하우와우미래캠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국립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지지 확산을 위한 행사 참석자들의 퍼포먼스로 시작을 알렸다. /장은성 기자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워크숍은 1부에서는 제1기 하우와우미래캠프 경과 보고와 제2기 프로그램 소개 및 운영 계획을 통해 캠프의 취지에 맞는 콘텐츠와 자원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영경원 센터장(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본부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례로 본 제언’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끝으로 3부에서는 각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각 협업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캠프 내에서 맡게 될 역할을 정리하고,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학생 교육비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토록... 총학과 논의 후 결정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상호)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립군산대는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대학(학부)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하게 됐다.

최근 여러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 도미노 인상’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호 총장은 총학생회(회장 임주예)와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국립군산대학교의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165만 9000원, 예능·공학계열 211만 9000원, 이학·체육계열 197만 8000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장학금 수혜율은 학부 재학생 전체의 87.2%에 달해 학생 복지가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이번 등록금 동결과 관련해 “무로 통학버스 운영, 교내 장학금 확대, 지역연계복합센터 건립 등 학생복지 우선정책과 교

육여건 개선에 따른 등록금 수입 증액이 절실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재정지원사업 수주 및 재정 효율화 등 각고의 노력으로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의 신입생 등록기간은 2월 10일부터이고, 재학생은 2월 24일부터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24일까지 겨울방학 학습 상담 주간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오는 20~24일 5일간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학습 상담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전에 학생별 학습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